

부석사에 부도발이? 그것도 두 곳이나?



4 부석사, 외진 곳에 펼쳐진 화엄법문

큰 절은 곳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을 보는 데는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지식도 헛수고만 부추기는 허깨비일 뿐입니다. 큰절에서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읽은 것과 들은 것으로 꿰뚫어보면 이미 보물은 10만 리 밖으로 달아나버립니다. 큰 절의 보물은 '나'를 비웃만큼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석사가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들이 주는 신비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건축인 무량수전과 안양루, 조사당, 지장전, 자인당, 응진전을 비롯한 전각들의 찬연한 향기는 그 앞에 서기만 해도 삶에 지친 영혼을 신라의 파란 하늘 아래로 이끌어 주는 듯합니다. 돌계단을 밟으며 천왕문과 종루를 지나 올려다보는 안양루의 날아갈듯 한 자태는 저절로 감탄사를 토하게 합니다. 창건주인 의상 대사와 선묘양자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도 부석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감칠맛 나는 추억 만들기를 돕습니다. 무량수전 오른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선묘각 안을 기웃거리다 청춘 남녀들은 필시 마음속으로 국경과 인력(人力)을 초월한 사랑의 힘이 자신들에게도 깃들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아스라이 펼쳐진 연봉들을 굽어보는 눈맛도 유명하고 사시사철 특색 있는 풍광도 소문이 날대로 낫습니다. 부석사의 아름다움과 귀함은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혹 묻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한 번 가보시라"고 권하는 게 상책입니다.

눈 덮인 부석사를 오릅니다. 세찬 바람이 사과나무의 빈 가지들 회초리질 하는 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그러나 파란 겨울 하늘을 떠받치고 선 당간지주와 천왕문, 종루를 거쳐 무량수전에 이르니 목줄기가 더워집니다. 휴~, 긴 숨을 토하고 멀리 바다처럼 펼쳐진 허연 산골이들을 굽어보는 동안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 찬 도리'를 생각해 봅니다.

부석사 부도발에 가 보셨습니까? 아마 부석사를 다녀 온 사람 가운데 십중팔구는 가보지 못했을 겁니다. 부석사에는 숨겨놓은 보물처럼 아름다운 부도발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곳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석사에 갈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동부도발과 서부도발을 찾아가 볼 것입니다.

동부도발은 유물전시관 뒤에 있는 지장전을 돌아 뒤로 굽은 외길을 따라 가다보면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멀리 산봉우리들이 키를 재는 풍경을 뒤로하고 걷는 동부도발 가는 길은 제법 운치 있는 오솔길입니다. 한 북판만 눈을 풀어 두어 길속에도 또 하나의 길이 생겼습니다. '길속의 길'을 걷는 느낌이 무량합니다. 길속의 길, '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이 없다(法性圓融無二相)'



위 사진 오른쪽부터 동부도발, 서부도발 부도 지대석의 문양, 서부도발. 아래 사진 오른쪽부터 원웅 국사 비각과 비신의 글씨.

동·서 부도발에 9기와 4기의 부도 서 있어

절 명성 비해 부도발 잘 알려지지 않아 '한산' ... "역사정리 준비중"

대부분 상태 양호한 석종형, 주인은 '미상'

는 길이 바로 이 길일까요?

동부도발 가는 길에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굽이를 돌아 왼쪽으로 오르는 길을 따라 열댓 걸음 올라서면 아득막한 비각(碑閣)을 만납니다. 부석사의 또 다른 보물이 바로 이 비각 안에 있습니다. 안에는 두 개의 비가 있습니다. 왼쪽은 원웅국사비(圓熊國師碑 경북유형문화재 제127호)이고 오른쪽은 '해동화엄종조의상국사비'입니다.

원웅 국사(964~1053)는 열두 살에 출가했으며 어려서 정종의 왕사를 거쳐 문종 때 국사로 추대된 당대의 명승이었습니다. 그의 비가 중요한 것은, 바로 비문의 내용에 부석사의 건립 초기 상황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빗물에 새겨진 글자들이 마모가 심하고 귀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정교한 구양순체의 글씨들은 지금도 살아서 부석사의 창건에 얽힌 이야기들과 수많은 학승들이 경학에 몰두하던 그 시절의 구도열기를 전해 주는 듯합니다. 빗물을 받치고 있는 귀부는 모양이 단아하고 왕(王)자를 안에 새긴 6각형의 귀감문도 이채롭지만 머리 부분의 마멸이 안타깝습니다. 수성암질정적인 빗물은 옆에서 보면 크기에 비해 얕다는 생각이 드는데, 귀가 떨어져 나간 오른쪽 윗부분의 속살에서 긴 시간을 두고 응결되어 온 역사를 읽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빗물을 받치고 있는 귀부나 덮고 있는 이수가 모두 제짝이 아닌

니다. 원웅국사비 옆에 근래에 세운 '해동화엄종조의상국사비'도 원웅국사비가 발견될 때 인근에 함께 있던 비좌와 비각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볼 때 부석사 경내에는 창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비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전란과 도굴의 화를 피하지 못해 깨지고 사라져 버린 비들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를 뿐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부도발에서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동부도발은 한 쪽의 그림입니다. 이불처럼 덮여 있는 눈 아래에서 고운 잔디가 봄을 기다리고 있고 아홉 기의 부도들은 저마다 머리에 눈을 덮어쓰고 '제법부동본래적(諸法不動本來寂)' 속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부도 옆에 서 봅니다. 저 아래 아스라이 펼쳐진 산봉우리들이 파도처럼 밀려 왔다 멀어져 가는 기둥과 수많은 학승들이 경학에 몰두하던 그 중중 무진의 세계를 굽어보는 눈맛이 부석사의 명품이라면, 이 부도발에서 이끼 낀 부도 곁에 부도처럼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맛은 명품 중의 명품일 것입니다. 부도발에서는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양치 바른 곳이어서 햇살이 포근하고 저 아래 사과밭 북판 마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슴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보는 그대로가 화엄세상입니다. 부도는 대부분이 석종형이고 팔각원당형은 한 기

가 있습니다. 두 기는 팔각원당형과 석종형의 중간 형태로 보여 지기도 합니다. 부도들의 외형은 모두 반듯합니다. 왼쪽에 다섯 기의 부도 부재들이 따로 도열해 있는 것으로 보아 더 많은 부도들이 산 언덕가에 묻혀 있을 지도 모릅니다. 아홉 기의 부도들은 크기가 대체로 일정한데 석종형은 모두 누구의 것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주인의 법호와 당호가 새겨졌을 테지만 세월이 한 점 두 점 살을 빼어 먹으며 그 자취마저 감추어 버렸습니다. 부도탑이나 기둥이 따로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어쩌면 있었는데 유실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도들의 주인은 착실히 공부하며 안살림에 충실했을 뿐, 나라일에 나서거나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시대를 논하고 세파를 이끌지는 않았나 봅니다.

팔각원당형의 부도는 화려한 않지만 나름대로 단단한 생애를 살다간 스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옆에 자리한 부도의 몸통에서는 백봉당(白峰堂)이란 호를 읽을 수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 범해각안 스님이 지은 <동사열전>은 아도 원효 의상을 비롯한 200명의 스님들에 대한 간략한 전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이 더 많았다면 부석사의 부도에 이름이 전하는 스님들의 행적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발길을 서부도로 옮깁니다.

서부도발도 한 쪽의 그림입니다. 천왕문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다시 위로 향해 조금 올라간 곳에 화엄선원이 있습니다. 중간기둥에는 화엄사상연구원이란 간판도 달려 있습니다. 부석사에 선원이 있다? 교학의 대표적인 사찰인 화엄종찰 부석사에 선원이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이름마저 화엄선원이 아니라... 그러나 구산선문의 하나인 풍리산문의 개산조 혜철 선사 수학했고 조선조에서는 사명대사가 중건하기도 했으니 부석사와 선불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별심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분별심이아말로 '원웅'을 막는 장애입니다. 남의 집 앞마당을 지나가는 기분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선원을 지나니 길 아래로 선성님을 기다리는

초등학교처럼 나란히 서 있는 네 기의 부도가 보입니다. 서부도발입니다. 미끄러운 토기길을 따라 내려가니 부도발은 잠으로 안은합니다. 바람이 전혀 들지 않고 햇살이 푸짐하게 들어칩니다. 동부도발에 비해 좀 낮은 위치지만 멀리 바라보이는 풍광도 일품입니다. 이곳은 찾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을 두 곳이나 지나야 하는, 워낙 외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도발에는 한 기의 팔각원당형 부도와 세 기의 석종형 부도가 있습니다. 부도의 몸통에는 연화당, 명암당 등 주인의 이름이 제법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동부도발의 부도들에 비해 후대에 조성된 듯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적도 현재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부도의 크기와 조각수법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들 부도의 주인들은 옛비슷한 시대를 살다 갔을 것 같습니다.

"아빠 졸라맨이다. 졸라맨을 왜 그린거야?" 졸라맨? 한 때 인터넷 공간을 풍미했던 애니메이션 캐릭터 졸라맨. 부도발 기행의 동반자, 작은 아들 눈에 졸라맨이 들어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쪽에 있는 두 기의 지대석 바닥에는 팔각의 모서리를 따라 빙 둘러가며 졸라맨과 닮은 도형을 그려두었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 도형이었지만, 정확히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애비는 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졸라맨이 아니고, 아마 '옴'이란 인도 글자를 그렇게 그려 넣은 것 같은데?"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더욱 착잡해 집니다.

그러나 서부도발을 둘러보고 화엄선원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다가 우연히 부석사 총무 스님을 만나 마음이 밝아집니다. 양 쪽 부도발을 둘러 본 소감을 간략히 말씀 드렸더니 총무 스님이 다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줍니다.

"안 그래도 부도들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하려고 합니다. 부도에 법호와 당호가 선명하 스님들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절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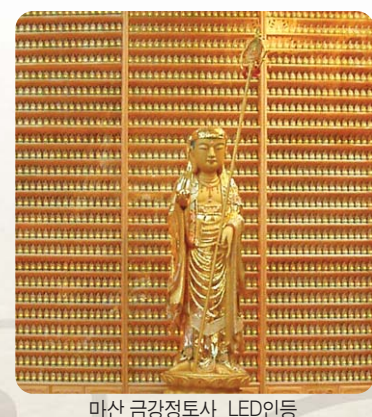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_ 대구 정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전등 종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